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금리 (국고채 3년) 2.330 (-0.001)	 한울 (원·달러) 1416.40 (+16.40) (12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
대미수출 30% 급락
02

류현진도 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 독수리들 飛上

한화그룹, 실적·주가·ETF ‘쌍끌이 상승’

한화에어로株, 올해 151% 꺾충
한화시스템·한화오션도 고공행진
ETF·지주사도 ‘수익 연쇄효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12연승 중

“뉴욕증시에 록히드마틴이 있다면
한국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한화 야구만큼 주가도 화끈하다. 21
세기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강남 집팔
아 한화그룹주를 산 투자자 아닐까?”
(한화그룹 주식 관련 A커뮤니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까지... 12일 재계와 한
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거
침없는 상승세다. 코디 폰세·라이언 와
이스부터 문동주까지 한화 이글스의 선
발진의 호투가 쇄도할 때, 한화 본업에
선 방산·조선·ETF까지 주가와 실적이
줄줄이 ‘연승’을 올리고 있다.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화
그룹 계열사는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다. 이날 증가는 82만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37조원
을 넘는 대형주이지만, 올해 주가 상승
률이 151%를 넘는다. 지난 8일에는 90
만원을 찍었다.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
다. 올해 외국인(6255억원)과 기관
(750억원)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 상승
을 주도했다.

DB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깜짝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
가를 8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서재호 연구원은 “폴란드 잔여분과 내
수 양산 사업 타임라인을 고려한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와 내년 연
간 영업이익은 각각 2조5000억원, 2조
7000억원으로 증익 기조가 지속될 것”
이라며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와 탄약
초과 수요량을 고려한다면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잠재
력도 보유하고 있다. 실적 서프라이즈
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도 외국인 투
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2만2600원 하던 주가는 이날 4만
2950원까지 상승했다. 메리츠증권은
“방산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미국 해군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만6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
향 조정했다.

역시 호실적을 이어가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증가는 7만6200원. 한화오션은 올
해 들어서만 주가가 104% 오르는 등 파
죽지세다. 한화오션에 대해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NH투자증권(11만
원)의 정연승 연구원은 “상선 부문의 수
익성 개선 여력, 설비투자를 감안하면
해양, 조선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며 “2025~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
각 39%, 32%, 25% 상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인 한화는 올해 81%대 급등
세를 보였다. 이날 주가는 4만8900원에
마감했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화가 보유 중인 3개 상장 자회사(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비
전)의 지분 가치가 최근 급증한 영향이
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미팅
룸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IT 개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
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방문해 순대국밥을 먹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 서
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식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4·6면> /뉴시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2위 정조준... 中·러 재공략 박차

中 전기차 출시·러시아 공장 재매입
판매 회복 땀 폭스바겐 역전 가능성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판
매 2위 도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됐지만 현대차
·기아는 현지화 전략으로 돌고구를 마
련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2위 폭스바겐그룹과의 격차를 좁히며
바짝 추격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
근 중국과 러시아 시장의 판매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인 중국은 신형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공
장 재매입과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복귀
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다.
현대차·기아는 2016년 중국에서 180만
대를 판매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엔 20만4573대를 기록했다. 중국에 있
던 5개 공장 중 베이징 1공장(2021년)과
충칭공장(2024년)은 이미 매각했고,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장주성 창저우공

장도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21년 연 40만대 가
량 판매하며 현지 점유율 1위를 기록했
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철수했다. 당시
(2023년 말)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
르부르크 공장을 단돈 100원에 매각했
다. 하지만 2년 내 재매입이 가능한 옵션
을 함께 설정한 덕분에 연내까지 이
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중국과 러시아에
서 판매량을 회복할 경우 2위 폭스바겐
그룹의 판매량을 넘어서는건 시간 문제
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에서 총 723만1000대를 판매했다. 2위
폭스바겐그룹(902만7000대)과는 180
만대 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양사의
글로벌 판매 감소를 보면 현대차·기아
는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한 반면 폭
스바겐그룹은 2.3% 감소했다.

현대차·기아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 공
략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와 중국 베이징차 합작법인 베
이징현대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25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전기 S
UV ‘엘렉시오’를 최초로 공개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社告

메트로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이 미래를 선
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
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
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
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
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
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
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연
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단말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속보와 금융
정보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뉴 메트로 선언’ 10주년인 올해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② 경력 취재기자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 3차 면접
(1차 실무면접 → 2차 최종면접)
② 모집인원 : 00명
③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5년 8월 졸업 예정
자 응시가능)
2. 경력기자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 00명
③ 주요 모집부문

산업, IT 및 경제분야(금융, 증권)
(상기 모집 부문 이외에도 메트로와
함께 미래를 개척할 진취적인 분은
지원 가능)
④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
② 경력기자의 경우 동종업계 기사
경력 2~7년. <3면에 계속>

metro®

메트로 韓줄뉴스



▲이재명 “지난 대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다”

▲한동훈 “김문수, 탄핵 반대 사과 없으면 尹 부부
대리전 하는 모양새” /사진 뉴시스

▲김문수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 가난하게
하는 것은 진보 아냐”

▲김용태 “당 스스로 대통령 잘못에 책임을 지우
지 못한 과오 인정해야”

▲이준석 “보수, 고쳐 쓸 수 있는 상태 아니다...
단일화 절대 불가”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직 고사... “실무적
으로 적절성 논의 필요해”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 對美수출 전년비 30% 급락

이달 10일간 美 수출액 20억 달러
세계수출 24% 줄어든 128억 달러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 14% 증가
승용차 23%, 석유 36% 등 감소
수출국 中 20%, 유럽연합 38% ↓

이달 상순 대(對)미국시장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다. 전 세계 각지로의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에 부과된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9억 9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4% 감소했다. 올해 5월 상순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1.5일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미 수출 감소 폭은 작지 않다.

미국으로의 일평균 수출액은 9.54%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뉴시스

4억4046만 달러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억984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달 1~10일 기간 전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 23.8% 감소한 12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

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 감소했다. 올해 5월 1~10일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적었다.

올해 들어 수출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월에는 설 연휴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15개월간 이어진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2월부터 4월까지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5월 초순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10일 기준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승용차(-23.2%), 석유(-36.2%), 선박(-8.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지별로는 중국(-20.1%), 미국(-30.4%), 베트남(-14.5%), 유럽연합(-38.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48.7%를 기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목재와 반도체에는 아직 관세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상호 관세는 오는 7월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은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달 초 조업일수가 5일에 불과해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매길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 중이다. 다만 10%의 보편관세와 철강·자동차(25%) 등 일부 품목별 관세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가 사라지면서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실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다.

이달 1~10일 승용차 수출액은 11억 2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3.2% 후퇴했다. 철강 제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액도 같은 기간 각각 41.2%, 42.6% 급감한 7억6300만 달러, 3억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석유제품(-36.2%), 컴퓨터주변기기(-34.6%), △무선통신기기(-23.0%) 등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의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6.1%), 반도체(-8.2%) 등의 수입은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美-中 상호관세 각각 115%p 씩 내렸다

스위스 제네바서 이틀간 마라톤 협상
美, 중국산 제품 관세 145%→30%로
中, 美제품 10% 관세… 90일간 유예
펜타닐·히토류 등도 수출 협력 할 듯

미국과 중국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에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고 145%의 관세를 30%로 낮추고, 이 관세 인하 조치를 향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보복 관세를 10%로 대폭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부과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중국산 제품 관세는 125%까지 즉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그 흐름을 뒤집고 무역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협상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최고 145%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와 125%의 중국 보복관세에 대한 조

정이었다. 관세 인하는 양국 모두의 무역 적자와 경기 침체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 대중국 관세를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도 여전히 높은 관세로 무역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은 히토류가 첨단산업과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만큼 중국의 공급 독점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조되었다.

미국 측은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이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간 의견 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미중 무역관계 재설정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기본 관세를 10% 이하로 낮출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유지해 협상의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핑 부총리는

“협상은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통상 및 경제 협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협력을 확대해 차이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함께 내비쳤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양국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며, 만약 유예가 무산될 경우 미국의 관세는 최대 54%까지, 중국의 관세는 최대 34%까지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번 관세 유예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양국은 향후 경제·무역 관계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 TR) 대표, 중국에서는 허리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으로 협상에 계속 임한다. 향후 논의는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진행되거나 양국 합의하에 제삼국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고위급 외에 실무급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춘 기자 ch9720@

SKT, 해외 로밍 중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14일까지 순차적 자동가입 진행

불법 유심(USIM)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된다.

SK텔레콤이 12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단말 정보와 유심 정보를 연동해, 타인이 유심 정보를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기존 유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심 교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백업이나 설정 변경 등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2400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외 로밍 시에는 제한적으로 작동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변경과 의심 기기를 탐지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는 해외에서도 유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이 교환 받은 유심칩을 받아 들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심보호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와 동일한 방식의 인증 감지 시스템(FDS)을 적용받게 된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기존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12일부터 개선된 서비스가 자동 적용된다.

/김서현 기자 seoh@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

서기관·사무관 5명 배정 처리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

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

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했다. 사건처리팀은 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화자산운용, ETF 점유율 6위 복귀

>> 1면 ‘한화그룹, 실적’…서 계속

계열사주가 급등세는 자산운용 부문 성과로도 이어졌다. 한화자산운용은 3분기 만에 ETF 시장 점유율 6위에 복귀했다. ‘PLUS K방산’, ‘PLUS 한화그룹주’, ‘PLUS 글로벌방산’은 최근 3개월 수익률이 각각 50~65%가량 육박하며 ETF 시장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독수리 군단 한화는 펄펄 날고 있다. 한화는 11일 고척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과 원정 경기에서 8대0 완승을 거뒀다. 지난달 26일 KT전부터 시작한 무패(12연승) 행진은 어느덧 구단 자체 신기록을 향해 가고 있다. 전신 빙그레 시절 기록한 14연승(1992년 5월 12~26일)이 그 정복 대상이다. 한화는 시즌 27승 13패로 2위(26승14패) LG와 1경기 차를 유지하며 단독 선두를 지켰다. 한화 팬들도 신났다. 연일 만원이 다. 4월 24일 부산 롯데전부터 홈·원정을 가리지 않고 한화 경기는 14연속 매진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내외 여건 급격히 악화… 경기 둔화국면 진단

KDI 5월 경제동향

4개월 연속 부정적 판단 유지
27개월만에 ‘경기 둔화’ 적시
“수출 중심 하방압력 확대 가능성”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영향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고, 향후 수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KDI가 매월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으로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1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에는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문의 안내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종전에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가 보고서에 적시됐던 달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도 수출 부진까지 겹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제조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최근 경기 지표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건설업 생산은 -14.7%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 회복을 떠받칠 건설투자의 급감이 전체 생산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는 3월 기준 14.1% 증가하며 선방

했지만, 제조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 전망지수)는 90으로 장기 평균(95)을 하회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소비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중심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1분기(1~3월)로 보면 1.0%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늘어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정부일자리사업과 밀접한 부문(15만5000명)에서의 증가세가 취업자 수를 밀어올린 데 반해, 이를 제외한 부문은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18만5000명)과 제조업(-11만2000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가시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특히 대미 수출은 -10.6%로 급감했으며, 고관세가 부과된 자동차(-20.7%)와 철강(-11.6%)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한파 여전… 1인당 일자리 수 ‘0.43개’

4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18만명 증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 집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4월 기준)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직자는 38만여명이지만, 기업 신규 일자리는 16만여명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1년 전보다 각각 6.1%, 9.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4월 기준 2020년 4월(16만3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건설업 고용한파가 여전

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해 21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0.2%(6000명)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위주로 감소했다. 고용허가제(E-9, H-2) 외 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1만4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며 1년 전보다 1.9% 증가한 107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4만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의 경우 정보통신, 도소매, 제조

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했고, 40대는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위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나머지 3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층 가입자는 증가했다.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6 감소했다. 구인배수 역시 2020년 4월(0.34)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의 인력 수요는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24.6%) 감소한 반면, 구직인원은 38만6000명으로 오히려 1만6000명(4.2%) 증가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70만2000명으로 2021년 4월(73만9000명) 이후로는 가장 많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 4월(1조1580억원)에

유박했다.

고용부는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구직급여 상황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라며 “3월 취업자 수도 19만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악화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고용지표 완화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쪽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보건이나 돌봄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 있다”며 “나머지 산업들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업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늘고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용보험 가입자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社告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원서접수

① 기 간 : 2025년 5월 13일(화) ~ 2025년 6월 09일(월)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6월 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②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첨부(3~4개, 입사지원서 하단에 첨부하거나 별도 제출)

③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받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① 신입기자 : 2025년 6월 12일(목)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② 경력기자 :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721-9851) 인사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 1면 ‘현대차그룹, 글로벌 2위…’서 계속

현지화 등 품질·신뢰 관건

이 차량은 베이징현대가 현지 시장을 겨냥해 자체 개발한 중형 SUV급 전기차다. 엘렉시오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한 모델이지만, 중국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기능,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을 적용했다. 베이징현대는 엘렉시오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6종의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이 논의되면서 현대차·기아는 현지 시장 재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제철용 수수료(사실상 관세 역할)를 대폭 인상했고, 이는 현지 공장 없이 수출 중심 판매에 집중하는 중국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대차가 현지 공장을 재매입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북미 시장이 관세 여파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시장은 단기 수익보다는 고비용·고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품질 신뢰가 관건”이라며 “높은 불확실성도 안고 있어, 현대차그룹 같은 글로벌 제조사만이 재진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AI 컴퓨팅센터 사업’ 공모 임박… 주요 ITS기업 “검토 중”

사업 참여 관련 신중한 태도 보여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 접수 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ITS) 기업들은 사업 참여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 대표 IT 서비스 기업들은

국가 AI컴퓨팅 센터 조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참가 계획과 관련한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참여 예정이라거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 정도만 밝혔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은 AI 연구·개발(R&D)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민·관 합작 투자를 바탕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대출 등

자금 차입을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는 6년간 공공 출자 2000억원, 자본금 약 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참여자는 SPC 설립 시 지분을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삼성SDS는 이달 19~30일 국가 AI컴

퓨팅 센터 구축 사업 참여 계획을 접수할 것인지, 신청한다면 어느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참여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LG CNS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 등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고, SK C&C 측은 “해당 사업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소관이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

與 ‘AI 대전환’, 野 ‘기업 활력’… 1호에 담긴 정책 승부수

정당별 10대 공약 공개

與, 기술 초격차로 미래 먹거리 확보
데이터 인프라·민간 자금 유치 주력

野, 시장 자율로 기업 환경 다시 설계
노동 유연화·세 부담 완화 카드 꺼내

개혁신당, 정부조직 슬림화 운영 혁신
부처통합·예산기획 이관 구조조정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각 정당 모두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 아젠다로 보고 관련 공약을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기존 업무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10대 공약**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내란극복,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와 나라
6 세종 행정수도 및 '5국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가는 서민경제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어르신 함께 돌보는 국가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10 복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속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컬처 산업과 K-방산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국민편드 조성, 과감한 세제혜택, 맞춤형 자금공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

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거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1호 공약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번 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행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미래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공약도 내놴다.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1호 공약에 추가로 드는 재정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1호 공약을 선보였다. 개혁신당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며 현 19부처를 13부처로 통폐합 및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보장 중심’ vs 金 ‘성장 전략’… 두 갈래로 나뉜 경제 해법

금융공약 ‘정면 승부’

이재명, 노후보장·시장 정비 강조
정년 연장·수수료·코인 발행 추진

김문수, 청년 제도개편 방안 내놔
2차 연금개혁·공공기관 투자 허용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가상자산 등 금융부문 주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과 추진 계획을 정리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앞서 인터뷰나 경선 과정 등에서 발표했던 일부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청년지원 등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꼽히는 분야에 관한 공약을 다수 포함했다.

◆李 “노년 보장 강화해야” vs 金 “청년 부담 줄여야”

연금개혁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2차 연금개혁’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본연의 ‘노후 보장’ 기능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현행 국민연금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논의부터 입법의 모든 과정에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급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나이에 맞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노령연금)

을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 보장’ 강화가 목표다.

◆“공공기관 시장 참여” vs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두 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맞붙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을 넘겼고,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량 증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기관의 투자 수익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앞서 총리실 산하 가상자산 육성·감독 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통화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의 출범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만큼,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한 기존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등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함께 약속했다.

◆“청년에 양질의 기회 제공” vs “구직 청년 부담 완화”

각종 청년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AI·수출입 전문인력 육성 등 청년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결혼·출산 시 최장 9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 확대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구직지원활동금 확대 등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 주거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성장엔진 재점화’ 외쳤지만… 현장선 규제완화 절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개선 논의
주 52시간제·최저임금 등 유연화 촉구
제조업·벤처 업계 ‘현실 체감형’ 호소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 중심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분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이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

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으로 ‘경제 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손발이 묶여 납기 대응이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제도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

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머물러 있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 기업 중 20%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 등 노동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금융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전면적인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벤처를 대표해 나온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전문가와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핀크 |

“내란 종식” vs “국민 섬길 것” vs “양당 구조 무너뜨려야”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선거운동 나선 대선 후보자들

이재명, 광화문서 선대위 출정식
판교서 AI·IT 개발자들과 미팅

김문수, 가락시장 찾아 현장행보
민주당·진보당 ‘가짜진보’ 발언

이준석, 여수 국가산단 방문
“새로운 정당에 지휘봉 넘겨줘야”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각각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총 7명이다.

이날부터 대선 후보들은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있고, 선거 홍보 음악 사용과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5월 29~30일에 사전투표, 6월 3일에 본투표가 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선대위 출정식에 등장해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시스

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광화문에서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시민 사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집회를 이어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동해 AI(인공지능)·IT(정보기술) 개발자들과 함께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탈락 후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나”라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구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5시 수

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열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탈북민 국회의원 박종권 의원을 앞으로 불러내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함을 알리며 자유통일을 이룰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

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자유통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당을 언급하며 “혹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짚어버리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후폭풍에 따른 혼란을 정비하고 통합·혁신 행보를 보이기 위해 35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딛발’인 대구로 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여수국가산단을 찾아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공단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며,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서울고법, 일정 추후 지정으로 변경
대통령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해석 갈려
헌법학계 “당선 이후론 재판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후보와 동등하게 선거 유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언제 지정될 지 모른다는 의미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열고, 내달 3일까지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은 대선일이 지정되기 전에 정해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13일과 27일로 잡혀있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5개 재판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대선 전까지 중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결국 이날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사실상 해소됐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든 재판 일정이 순연된 덕에 이 후보는 대선 유세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헌법 84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란 형사 사건의 경우 소(訴)를 제기(재판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해당하므로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최대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혼란을 덜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8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견이 분분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재판이 미뤄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 이후 이 후보는 ‘K-과학기술(AI)’을 테마로 판교·동탄·대전을 차례로 방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포토라인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
공판서 ‘의원 끌어내기’ 증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12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군 간부가 법정에서 출석해, 증언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다.

붉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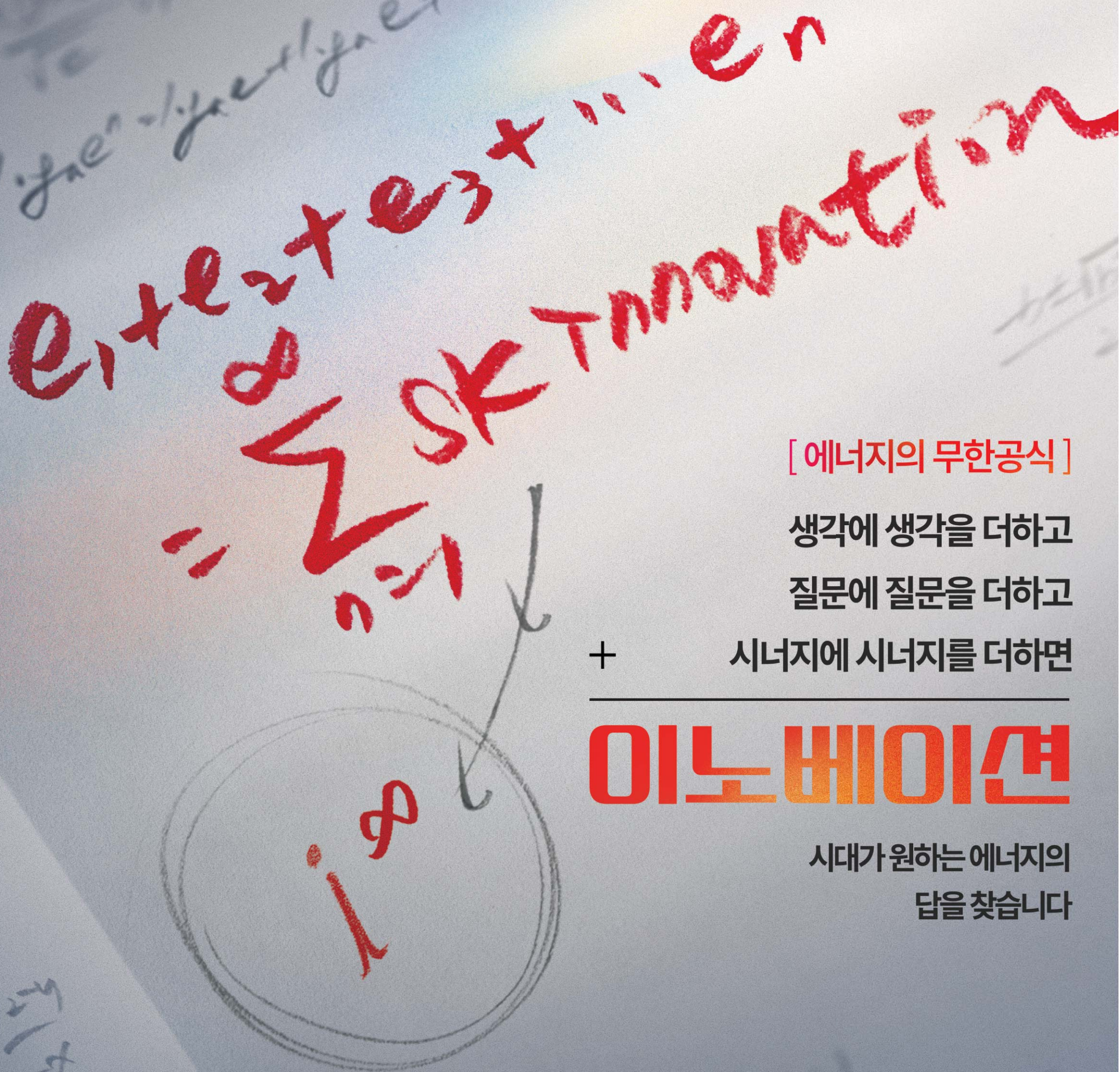
특히 오상배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 전 부관은 이날 2차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오전 부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4번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세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네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서예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프리미엄=가성비… 카드사, ‘혜자전략’으로 우량고객 유혹

신한, 6년만에 프리미엄 카드 출시
연회비 대부분 바우처로 환급
하나·국민·우리카드도 영업 속도
실질 부담 낮추고 혜택은 극대화
연체율 낮은 우량고객 확보 포석

신용카드사가 연회비의 상당 부분을 바우처로 돌려주면서 ‘프리미엄=가성비’란 공식을 세우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량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동안 프리미엄 카드 영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한카드가 6년 만에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선보였다. 연회비는 해외 겸용 30만원이다. 매년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맹점 관계없이 1%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연간 6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만원을 추가로 돌려준다. 실적에 따라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나카드는 프리미엄 상품군인 ‘제이드’ 3종을 발표했다. 연회비는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다. 연회비



신한카드 프리미엄 신용카드,

가 가장 저렴한 제이드 프라임은 매년 2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앞서 KB국민카드는 ‘헤리티지 클래식’을 공개했으며 우리카드는 쇼핑 특화 상품인 ‘디어쇼퍼’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연회비는 각각 15만 7000원, 15만원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하는 배경에는 우량고객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소비여력이 높은 이용자를 통해 신용판대(M/S) 잔액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데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연체 위험이 높



하나카드 프리미엄 상품군 ‘제이드’

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한다.

최근 카드사의 영업 전략은 ‘가성비 프리미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급형 신용카드 대비 적립률을 높게 책정하면서 연회비의 50~70%는 포인트나 상품권 등 현금성 혜택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프리미엄 카드의 대중화를 시기상조로 보는 만큼 혜택은 높이고 실질적인 연회비 부담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 신용카드 대비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프리미엄 카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프리미엄 전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는 지난해 MZ세대부터 시니어를 겨냥한 프리미엄 카드를 연이어 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신환잔액은 105조1652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분기 연체율은 0.90%다.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6

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카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카드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카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02년 ‘카드대란’ 이후 과잉 영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카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알짜카드’로 신규 회원을 확보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혜자카드’ 등으로 불린 가성비 카드가 프리미엄 카드로 대체되고 있는 것.

카드대란은 지난 2002년 발생했다. 카드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과잉 영업과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이뤄졌다. 내수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지만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카드를 중심으로 과잉 경쟁을 방지하는 선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현금성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연회비 부담을 낮춘 만큼 소비여력과 패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청년들, 금융지식 높지만 실천능력 부족”

금행넷-도도한 콜라보 공동조사
금융지식 71점, 금융행동 47점
“행동실천 중심 금융교육 필요”

청년들이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재무계획 수립과 지출 기록 유지와 같은 일상 기반의 재무 실천능력이 취약했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12일 청년 맞춤형 플랫폼 ‘열고닫기’를 운영하는 도도한 콜라보와 ‘청년 금융역량과 금융행복도’ 공동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열고닫기 플랫폼 이용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만 39세 이하 청년 300명 중 259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금융 역량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67점으로 집계됐다. 금융 지식은 71.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행동은 46.72점으로 가장



유토이미지

낮았다.

청년들이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 역량과 금융 행복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 행동이 높을수록 자신감, 만족감, 안전감 등 금융행복도 전반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전반적인 금융행복도

가 높았다. 청년 재정 불안정성이 주관적 금융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열고닫기는 행동 실천 중심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실제 행동과 습관을 유도하는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금융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산지원형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 청년이 상대적 박탈감과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도 필요하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오늘날 금융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복잡한 금융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본 금융’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금융역량이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삶의 질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거래 줄었는데 강남·과천 절반이상 ‘신고가’

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47% 감소
고급 주거지 중심 신고가 다수 발생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를 중심으로 종전 최고가 이상 거래가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서는 여전히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약 47% 감소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구(59.0%)와 경기 과천시(62.5%)에서는 전제 거래의 절반 이상이 종전 최고가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서울 강남구는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과천시는 과천푸르지오써

밋, 래미안수르, 과천자이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으로 거래는 감소했지만 강남과 과천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며 “실거주 수요와 향후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3월 9.10%에서 4월 5.97%로 하락했다. 서울은 18.75%에서 15.44%, 인천은 2.97%에서 2.55%, 경기는 3.75%에서 3.08%로 각각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7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 조기대선 등 정책 변수에 대한 관망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랩장은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는 선택적 매수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부 고가 단지의 신고가 거래가 기준점(영커) 역할을 하면서 주변 단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IBK기업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나선다

ESG정밀진단 컨설팅 등 제공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을 선보였다.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 ESG 수준을 상세 진단하는 ‘ESG정밀진단 컨설팅’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ESG정밀진단 컨설팅’은 25개 산업

군을 기초로 ESG 규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 선정하고 기업실사를 통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업이 당면한 ESG 리스크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제공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공급망 내 협력사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해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김인태 혁신금융그룹 부행장은 12일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최적화된 개선이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타 기관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공급망 대응 평가가 시급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 은행 영업점에 신청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신한銀, GPT 연계 금융지식 Q&A 서비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AI) ‘GPT 모델’을 탑재한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애저(Azure) 클라우드를 활용한 고성능 생성형 AI ‘GPT 모델’ 개발 관련 사항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고, 지난 3월 금융보안원 보안 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신한은행은 직원용 AI 업무비서 플

랫폼 AI ONE에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고객의 상담 요청에 맞춰 상품 내용·업무 규정·금융 정보 등 질의 응답 방식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고객 상담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직원용 플랫폼에 이어 고객이 직접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중 ‘AI 창구’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AGM 배터리 덕... 한국엔컴퍼니, 1분기 매출 3887억 ‘깡충’

AGM 배터리 판매량 전년比 10% ↑
북미지역 AGM 매출 6% 이상 늘어
배터리 사업만 2700억대 실적 달성
납축 중심서 리튬이온으로 확장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엔컴퍼니는 올해 1분기 매출 3887억원, 영업이익 126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5%, 1.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실적은 한국엔컴퍼니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납축전지) 사업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한 2702억원을 달성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프리미엄 라인인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했고, 북미 시장에서의 AGM 배터리 매출도 같은 기간 6%가량 늘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경기도 판교 소재 한국엔컴퍼니그룹 본사 테크노폴렉스 전경.

자동차의 전기장치 개발로 사용되는 전기소모량을 납산 배터리가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면서 높은 안전성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AGM 배터리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AGM배터리는 유리 섬유 매트를 사용해 전해액을 흡수시켜 압도적인 효율성을 확보했다.

한국엔컴퍼니의 배터리 사업은 타이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한국엔컴퍼니그룹의 핵심 동력으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시장에서 AGM 배터리 제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엔컴퍼니는 그룹 고유의 ‘한국(Hankook)’ 브랜드를 활용해 ‘한국(Hankook) 배터리’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5년 연속으로 차량 배터리 부문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한국엔컴퍼니는 AGM 배터리의 생산 및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리튬이온배터리(LIB)도 개발할 방침이다. 국내의 전주공장, 대전공장과 함께 국내 납축전지 업계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국 현지 생산거점을 통해 글로벌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엔컴퍼니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앞서 그룹은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고용창출 등에 따른 국가경제 기여에 맞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한국엔컴퍼니벤처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는 한국엔컴퍼니의 100% 자회사로 운영하여 인공지능(AI)·로봇·우주항공·양자컴퓨팅 등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육성을 돕는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는 타이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AGM 비중을 높여 관련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며 “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R&D 협업 확대

해외 스타트업 대상 기술 제안 접수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OSS’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OSS는 배터리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언제든지 LG에너지솔루션 측에 배터리 관련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열린 플랫폼이다.

OSS는 ▲소재 ▲셀 ▲셀 공정 ▲팩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시스템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니드 베이스드’ 공모와 기술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오픈 토픽’ 공모로 나뉘어 운영된다. 니드 베이스드 분야는 내달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오픈 토픽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타트업뿐 아니라 일반 상장기업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오픈 이노베이션 포털 ‘BRIDGE’를 통해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혜민 기자

한미반도체, TC본더 놓고 美제재·국내이탈 ‘이중전선’

中 공급 자제하며 美 제재 선긋기 시도
SK하이닉스, 한화세미텍 거대로 균열

한미반도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둘러싸고 중국과 국내에서 상반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규제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국내 최대 고객인 SK하이닉스와 관계도 흔들리며 국내외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12일 대만 자유시보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가 최근 중국 제조업체에 “TC본더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핵심 장비”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

미반도체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흐름에 맞춰 자발적으로 공급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TC본더는 HBM 생산의 핵심 장비로, 고온·고압 환경에서 반도체 칩을 수직 적층해 하나의 제품으로 접합하는 공정에 사용된다..

한미반도체는 관련 질문에 대해 “고객사 관련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미반도체가 실제로 공지를 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중국 제조업체에 공급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 입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창신메모리

(CXMT)는 현재 3세대 HBM2E를 양산에 돌입했으며, 내년까지 4세대 HBM3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TC본더 공급이 끊길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기술 고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TC본더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HBM3E 생산에 필요한 고정밀 장비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HBM 선두 기업들도 모두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SK하이닉스와 8년 넘게 이어온 독점 공급 관계가 흔들리며, 한미반도체는 주도

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한화세미텍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20억원 규모의 TC본더를 발주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그간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TC본더를 독점 공급하며 납품 단가 동결, 무상 고객 지원(CS) 등 우대 조건으로 협력해왔으나, SK하이닉스가 과거 특허소송으로 갈등을 빚었던 한화세미텍과 손을 잡자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한미반도체는 납품 단가를 약 28% 인상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던 CS 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SK하이닉스 이전 공장에 파견돼 있던 현장 기술 인력도 전원 철수시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혜민 기자 hyem@

가성비 끝판왕 전기차... ‘전비·실내·편의성’까지 짝 채웠다

 YG의 CAR TALK 

BYD ‘아토3’

2000만원대 SUV, 전기차 보조금 수혜 e-플랫폼 3.0 기반 주행 안정성 돋보여
회전 디스플레이·공간 구성도 차별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의 아토3는 단순히 가격만 좋은 모델이 아니었다.

최근 시승을 통해 경험한 아토3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뛰어난 전비(전기차 연비)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제품 경쟁력을 갖춘 아토3는 지난달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543

만 판매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 모델 Y 통레인지(533대)를 근소한 차이로 넘어서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토3의 첫 느낌은 기대했던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닌 평범한 소형 전기 SUV였다. 특히 2018년 국내 처음 출시된 중국산 내연기관 중형 SUV 쉐보레의 성능에 실망했던 탓에 기대감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아토3는 그동안의 중국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려줬다. 시승 구간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일대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100km에서 진행했다. 막히는 서울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그리고 고저차가 많은 도로를 주행했다. 시승 모델은 아토3 플러스 트림(3330만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200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

밋밋한 외관과 달리 아토3 실내는 기존에 볼 수 없는 신선함이 묻어났다. 주행 중 세로로 돌아가는 12.8인치 디스플레이와 돌출된 형태의 도어 손잡이, 부드러운 감촉의 내장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실내 공간은 소형 SUV지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토3는 전장 4455mm, 전폭 1875mm, 전고 1615mm로 기아 EV3보다 크다. 또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했다.

주행 성능은 전기차 특유의 묵직함을 품고 있으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민첩하게 움직였다. 고속 주행에서도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는 BYD가 자랑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Platform 3.0’과 모든 전기 제어 장치 및 관리



BYD 아토 3.

시스템을 연결하는 양산형 ‘8-in-1 전기 파워트레인’의 완벽한 조합 덕분이다.

아토3는 기본 모델(3150만원)과 플러스 모델 등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전기차나 도심형 세컨카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에어프리미아

샌프란시스코 취항 1주년

누적 8만9000명 실었다

국내 최초 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리미아가 오는 17일 샌프란시스코 노선 취항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에어프리미아는 지난해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약 8만 9000여 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전체 여객(약 84만 5000여 명) 대비 약 10.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에어프리미아 취항 전인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해당 노선의 총여객 수는 약 68만 9000여 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약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프리미아는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대상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내년 3월 28일까지로 왕복 총액 기준(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으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는 148만 200원부터, 이코노미 클래스는 63만 200원부터 판매된다.

에어프리미아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취항으로 미주 여행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미주 지역 신규 노선 확대와 인터라인 제휴 강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로드맵 공유… “굴뚝산업 벗어날 것”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

탄소 포집·활용 기술연구 박차
원료 등 재활용 분야 협업 확대
“자원순환사회 핵심 산업 도약”

우리나라 시멘트업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연탄 대신 순환자원 활용을 적극 늘리는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모색에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호소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3410만톤(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01만t, 2050년엔 1603만t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신화월드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10년만에 개최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0여 개국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약 500여명이 참여하는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이번 3RINCs



(왼쪽부터)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 동국대 남은영 교수, 피터 호디노트 전 유럽시멘트협회장, 공주대 김진만 교수 등이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내 시멘트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특별 세션으로 채택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계는 ▲클링커 생산 시 슬래그 및 플라이애시(석탄재)와 같은 탈탄소 원료 대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혼합재 함량을 높이는 기술 ▲새로운 혼합재 및 혼합 시멘트 제조 기술 개발 ▲기존 유연탄을 순환 연료로 대체하는 기술 등을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

획이다.

피터 호디노트 전 유럽시멘트협회장 겸 라파르 그룹 부회장은 “대규모 CCU·CC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기술 도입에 앞서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탄소중립 실현 경로”라며 “CCU·CCS 기술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활용 자원과 저탄소 혼합시멘트의 활용 확대와 같은 대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시멘트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의 약 80%는 순환자원 재활용 대체연료를 활용해 만들며 약 25%는 저탄소 순환자원이 혼합시멘트의 클링커 대체재로 재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순환자원은 석탄재, 슬래그, 폐플라스틱, 페타이어 등을 말한다.

일본 시마네대학 아타라시 교수는 “연간 4000만t을 생산하는 일본 시멘트 산업은 석탄재, 고로 수재 슬래그, 건설 폐기물, 하수 오니 등 많은 양의 산업 폐기물과 부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화석연료인 유연탄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30%

에 달하는데 일본은 이를 페타이어,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김석완 회장은 “국내 시멘트업계가 수 십년 동안 우수한 시멘트 품질을 유지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멘트 산업에서 확인된 시멘트 제조공정상 폐기물의 안정적인 연료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 킬른에 ‘순산소 연소 기술(Oxy Fuel)’을 적용하는 등 대체 연료의 효과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계는 원료, 연료 순환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학계와 구체적인 협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은 “이번 3RINCs 참여를 계기로 향후 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멘트산업에서의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확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회의 객관적, 전문적 조언을 바탕으로 굴뚝산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롯데렌탈, ‘T car’ 공개… 중고차 사업 본격화

직접 구매·관리 장기렌터카 판매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경험 제공”

롯데렌탈이 중고차 브랜드 ‘T car’를 공개하고 중고차 소매(B2C) 사업을 본격화한다.

롯데렌탈은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구매 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신뢰&토탈 케어’를 브랜드 철학으로 한 T car 브랜드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T car는 롯데렌터카가 직접 구매하고 관리한 장기렌터카 차량만 판매한다. 주력 판매 차량은 연식 3~4년 차 현대차·기아차종이며 단기렌터카 차량은 제외한다. 차량 정비 전문가가 관리하며, 법정 성능검사와 보험 이력 등 관리



롯데렌탈 ‘T car’ 브랜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롯데렌탈은 고객이 차량을 충분히 경험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7일 이내 책임 환불제를 도입했다. 판매 이후에도 1년간 방문점검과 엔진오일 무료 교체 서비스인 ‘차방정(차량방문정

비 서비스)’과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롯데렌탈은 T car의 차별화된 관리 서비스를 내세운 광고 캠페인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광고는 ‘믿고 탈 수 있는 중고차의 퀵리T’를 강조한 ‘Trust 편’과 1년간 무상 방문 정비 서비스를 부각한 ‘Total Care 편’으로 구성됐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중고차 소매 사업 진출 선언 이후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브랜드 T car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터카가 축적해 온 차량 관리 노하우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차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케이카, 1분기 사상 최대실적 달성

매출 6047억, 영업이익 215억 집계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케이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15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0.04% 늘어난 604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다.

국내 소비 침체 등에 따른 중고차 시장 위축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과 시세 산정 등 내실화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케이카는 설명했다.

소매 판매 부문의 효율적 재고 관리와 경매 부문의 거래 확대도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경

매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1% 늘었다.

케이카는 지난달 세종 제2경매장 주차 공간 확충 등 경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케이카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적정 가격 운영, 다양한 매입 경로를 통한 고객 니즈 충족, 시기별 수요에 따른 재고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일 계획이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케이카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 AI 역량과 중고차 시장 재편 영향이 가져다준 긍정적 모멘텀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혁신적 서비스와 맞춤형 솔루션, 안정적 재무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대한상의 “韓 기업, 인권경영 필요성 커져”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와 함께 12일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규범, 우리기업의

인권실사 평가결과,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선희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실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국내에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이슈는 거의 없어졌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우리기업의 인권경영 현황과 인권실사 실시 확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기업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아젠다인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측가능한 인권 리스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인권 관련 규제로 우리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국회,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핑크퐁 아기상어, 美 ‘포커스 아트페어’ 간다

더핑크퐁컴퍼니 韓 캐릭터 최초 초청

핑크퐁 아기상어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부, 뉴욕 첼시에서 K콘텐츠의 지력을 선보인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이하 아기상어)’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포커스 아트페어 뉴욕 2025’에 초청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캐릭터로서 최초다.

포커스 아트페어는 글로벌 아트에이전시 흥 리가 주최하는 현대미술 행사다. 행사는 매년 40여 개국의 갤러리가 참여해 뉴욕, 파리, 런던 등에서 순회

개최하는 국제 아트페어다.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 아기상어는 244개국 25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글로벌 파급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세계 최초 100억 뷰 돌파 등 총 4건의 기네스 기록을 세우며 K콘텐츠의 신기록을 써온 아기상어의 10년 여정을 음악과 아트워크 스토리텔링으로 조명한다.

더핑크퐁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아기상어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용으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SKT, ‘유심 재설정 솔루션’ 도입… 위약금 면제엔 ‘소극적’

11일 기준 누적교체 고객 147만명
유심 공급 속도, 교체 수요 못 따라가
고객 이탈·위약금 면제 요구 대응

SK텔레콤이 유심(USIM) 교체에서 재설정으로 전환한 가운데 해킹 사태에서 비롯한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12일 실물 유심 교체 없이 기존 유심의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과 해외 로밍 중에도 고객 정보보호가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유심보호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유심 재설정 솔루션은 유심 공급 속도가 실물 유심 교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시된 대안이다. SK텔레콤은 이달 500만장, 6월 중 577만장의 유심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11일 기준 누적 교체 고객은 147만명에 불과한 반면 지난 2월 기준 SK텔레콤의 MNO(이동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통신부문) 가입 회선 수는 2309만9839개에 달한다.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 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 이탈과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유심 교체 지연을 지적하며 위약금 면

제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위약금 면제 논의가 나온 것은 지난 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부터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

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고, 입법조사처는 공식 답변으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하던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형평성·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이용자가 탈에 의한 매출 손실액이 수 조원에 이

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이 면제될 시 최소 250만명에서 500만명의 이용자 이탈이 예상된다”며 “3년간 매출 측면에서 7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약금 면제 없이도 이미 SK텔레콤을 떠나는 가입자들도 나타난 상황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 LG 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27만명으로 영업일 기준 매일 2만 여명이 이탈했다. 이는 알뜰폰으로 이탈한 가입자 수를 상회하지 않은 것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따른 통신사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가입자 시장에 대한 대응 여부가 향후 무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신한은행 기업용 AI 서비스 구축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
챗GPT·RAG 기술로 검색 고도화
직원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기대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인 LG CNS가 신한은행 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챗GPT 기반의 기업용 AI(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LG CNS는 신한은행 직원의 업무를 돕는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키워드 검색 방식의 챗봇을 챗GPT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으로 고도화한 서비스다. 신한은행의 업무지식과 상품설명서를 포함 10만건이 넘는 금융지식을 토대로 답변을 제시해 직원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예컨대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대출상품 알려줘’, ‘A 저축상품 가입자가 입자별 필요한 서류 알려줘’와 같은 질문을 하면 즉각 답변한다.

LG CNS는 ▲복잡한 금융 문서를 구조화하는 파싱(비정형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엔진 개발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는 청킹(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분할하는 정보 추출 기술) 기반의 하이브리드 검색기 설계 ▲최신 자료를 지속 업데이트·관리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관리 자동화 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고객 서비스도 챗GPT로 고도화했다. 신한은행의 대고객 서비스 ‘AI 브랜치’에는 다양한 창구 업무를 실제 행

원처럼 처리하는 AI 은행원이 있다. AI 은행원은 입출금 계좌나 체크카드 신규 발급, 외화 환전, 금융 문의 등의 창구 업무를 행원 대신 수행한다. 챗GPT 기반의 AI 은행원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 선보일 예정이며 서소문 지점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를 위해 LG CNS는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보안 전문 솔루션 ‘시큐엑스퍼 AI’를 적용했다. 이 솔루션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되는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신한은행 직원, 고객의 개인정보가 챗GPT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챗GPT에 대한 외부 공격과 비윤리적인 질문이 탐지되면 사전에 차단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인다.

/김현정 기자 hjk1@

중장년층, AI교육 ‘주목’… 실무 중심 ‘인기’

데이원컴퍼니, 방문데이터 분석

중장년층의 AI(인공지능) 교육 수요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생산성과 생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형 AI 학습’ 열기가 40~50대 이상 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실무 교육 브랜드 패스트캠퍼스의 AI 강의 상세페이지 방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5~54세 접속자가 25%로 1위를 차지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은 전체 방문자의 45%에 달했고,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비중도 5%나 됐다.

데이원컴퍼니 관계자는 “이는 AI 교육이 특정 세대의 유행을 넘어 모든 연령층의 직업 경쟁력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

았음을 보여준다”며 “중장년층에게 AI 학습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커리어를 지속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생존형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무 중심의 AI 교육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작년 패스트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AI 강의는 ‘테디노트 랭체인을 활용한 GPT부터 로컬 모델까지의 RAG(검색증강생성) 가이드’로, 누적 매출이 60억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프로에게 배우는 Comfy UI 이미지/영상/게임/광고 제작’, ‘AI 시대 일잘러를 위한 비현실적인 400가지 챗GPT 활용 바이블’이 각각 54억원,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검색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도 실무 중심의 AI 교육 수요 트렌드가 뚜렷했다.

/김현정 기자



KT클라우드 락드실즈에 참가한 직원들이 강영의 정보보호담당(왼쪽 첫번째),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왼쪽 여섯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클라우드

KT클라우드,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 참가

NATO 사이버방위센터 ‘락드실즈’

KT클라우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버 방어 훈련 ‘락드실즈 2025’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락드실즈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훈련이다. 한국은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국내 민·관·군 45개 기관과 170여명의 보안 전문가가 함께했

다. 지난 5~9일 KT클라우드는 가상의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수행하면서 5G 통신망을 포함한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의 실시간 사이버 방어 임무를 맡았다.

주요 통신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위협 탐지, 악성코드 확산 차단, 침해 지표 기반의 실시간 대응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이버 공격에 맞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사이버 보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 훈련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LG U+,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

‘프리미엄 환승구독2’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인 ‘프리미엄 환승구독’에 혜택을 강화한 ‘프리미엄 환승구독2’를 12일 출시했다.

‘환승구독’은 2023년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콘텐츠 환승 구독 요금제로, 지상파 3사·중편 4사의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주문형비디오(VOD) 월정액 상품 하나의 이용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환승구독2’는

KBS, SBS, MBC, JTBC, TV조선, 채널A, MBN까지 기존 7개 방송사에 CJ를 추가하여 총 8개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예능을 하나의 요금제로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 싶은 콘텐츠에 따라 8개 월정액 상품을 매일 바꿀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확대뿐만 아니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PTV 진입 화면에 ‘환승구독’ 전용 메뉴도 신설했다. U+tv 이용 고객은 ‘환승구독’ 전용 메뉴에 진입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바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불닭 신화’ 삼양식품, 장중 100만원 돌파 ‘황제주’ 등극

작년 5월10일 32만5500원서
94.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수출실적이 전체 외형성장 견인
밀양 2공장 가동편 유럽성과 기대”
KB 등 주요 증권사 목표가 상향



불닭볶음면 제품 모습.

/삼양식품

삼양식품의 주가가 12일 장중 100만원을 찍었다. 작년 5월 10일 32만5500원이었는데, 1년 만에 주가가 약 3배 뛰었다. 국내 유가증권에서 1주당 가격이 삼양식품보다 높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99만1000원)뿐이다.

경기 침체의 그늘에 있는 내수 업종인데다, 매출 2조원이 채 되지 않고, 라면으로 먹고사는 회사가 주당 100만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꿰찬 것이다.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를 놓고 실적과 성장세가 맞물려 돌아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작년 매출 1조 7280억원, 영업이익 344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9.9%로 식품 업계 단연 1위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빼고 나면 이런 이익률을 내는 제조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있는 ‘황제주’

국내 최초 라면 회사로 한때 시장점유율 70%까지 기록했던 삼양식품은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4년 구독자 58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영국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국 런던 사람들의 반응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국내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치솟았다. 영국남자가 올린 영상은 조회 수가 1000만회를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도전)를 하는 사람들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BTS,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 등 유명 인사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닭볶음면은 글로벌 상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닭볶음면이 출시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삼양식품이 판매한 라면은 2022년 13억

개에서 2023년 15억개로 늘었고, 작년에는 18억개를 기록했다.

불닭 신화를 이끈 주역은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전 세계 라면 시장을 뒤흔든 여성이라며 김 부회장을 소개했다. 또 불닭볶음면 성공의 중심에는 김 부회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닭볶음면 탄생 비화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고교생 딸과 함께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을 산책했던 2010년 봄,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한 한 볶음밥집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극도의 매운맛’ 라면을 만들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과 딸의 입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매운맛인데도 그릇을 깨끗이 비

운 손님들을 목격하고는 매운맛에 대한 열정이 궁금해진 것이다.

곧바로 김 부회장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뛰어가 비치된 모든 매운 소스와 조미료를 3개씩 사 각각 연구소와 마케팅 팀으로 보냈고 나머지 하나는 집으로 들고 왔다고 한다. 식품개발팀은 개발에 닭 1200마리와 소스 2t을 투입했고 전 세계 고추를 연구하고 한국 내 매운 음식 맛집도 찾아갔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고전중윤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다. 기업 경영 경험이 없었던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이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자 1998년 삼양식품에 입사해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을 돕기 시작했다. 이후 저렴한 대파와 팜유를 찾기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지를 뛰어다녔다. 김 부회장은 “당시는 절박감만 있었다”고 회고했다. 경영이 안정화된 뒤에는 2006년 구성된 신제품 위원회를 주도해 결과적으로 불닭볶음면 신화를 탄생시켰다.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판다

불닭볶음면은 우상향하는 실적을 만들어냈다. 실적에 주가도 발을 맞췄다. 이날 종가는 94만6000원으로 황제주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2016년 말 주가 4만550원에 비하면 폭발적인 상승세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7조1000억원이다. 시가총액 기준 62위다.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DS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이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4928억원, 영업이익 1129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41%씩 증가한 수치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1분기 우호적 환율 영향 속 전 분기에 이어 수출 실적 성장이 전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며 “1분기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 금액은 2억2900달러로 추정한다”고 했다. 예상이 맞다면 분기 최고 수출 실적이다.

박성호 LS증권 연구원은 “밀양 2공장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생산에 돌입하면 유럽 법인의 성장이 기대되며, 미국 관세로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잡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삼양식품이 MSCI 한국 지수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주식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수많은 운용사가 MSCI 지수를 쫓는 상품을 운용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호실적·정책수혜 기대 ‘52주 신고가’

주가 전일대비 6% 오른 1만2600원
1분기 당기순익 2582억 53% 증가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등도 최대실적

미래에셋증권이 호실적과 정책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6% 오른 1만26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만284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썼다.

주가 상승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5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 사옥.

/미래에셋증권

세전이익은 3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2조2000억원,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196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선진 시장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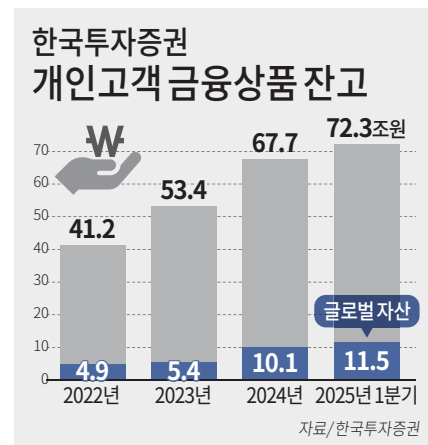
실적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혁신기업에 투자한 PI(자기자본투자) 포지션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함께, 국가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WM(금융상품 판매) 및 트레이딩 전략이 주요한 결과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와 WM 수수료 수익도 각각 1012억원과 784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했다. 연금자산 잔고는 44조4000억원으로 성장세가 계속됐다. 퇴직연금 1분기 적립금 증가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 업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약 2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트레이딩 실적도 3257

억원으로 호조를 보였다. 기업금융(IB) 부문은 2018년 인수한 LX 판토스 지분 매각에 대한 실적이 반영됐으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LG CNS, 서울보증보험 등 총 8건을 주관하는 등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했다.

정책적 수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투자증권

매달 1.5조 신규자금 유입
개인 금융상품 72조 돌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72조원을 넘어섰다. 매달 1조5000억원 안팎의 신규자금이 리테일 채널을 통해 꾸준히 유입되며, 3년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12일 한투증권에 따르면 작년 말 67조7000억원이던 잔고는 올해 3월 말 7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입 자금의 23%는 펀드에 투자됐다. 고객 수익을 우선시하는 손익차등형 펀드, 글로벌 운용사와 협업해 출시한 월지급식 펀드 등 차별화된 상품 공급이 주효했다. 이어 채권(15%), ELS/ELB(10%), 발행어음(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산 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상품 잔고의 16%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2023년(5조4000억원, 10%)과 2024년(10조1000억원, 15%) 대비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오너 리스크’ 더본코리아 목표가 1만9000원 제시

전반적 하락세… 고점대비 60% 하락

리서치알유은 12일 더본코리아에 대해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주가 전망을 ‘부정적’, 목표주가를 1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해 공모가를 3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2만3000~2만8000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상장 이후 주가는 장중 6만

4500원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60% 가량 하락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유 연구원은 “더본코리아는 상장 당시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들은 과도한 총 공모금액의 4.8% 수준인 49억원의 인수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오너 리스크, 프랜차이즈 업종의 성장 한계, 과거 상장폐지 사례 등을 인지하고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리서치알유은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더본코리아의 2025년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4128억원, 영업이익은 38.9% 줄어든 22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3066개였던 가맹점 수가 올해 말까지 2770개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가맹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통 부문은 흡소빙과 오프라인 채널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텔 부문은 수익성 모델템 부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 ‘빠다방’의 매출 의존도는 37.34%에 달하지만, 저가 커피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성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본코리아는 최근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지원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 연구원은 “해당 비용이 2025년 실적에 반영될 경우,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공정위 문턱 못 넘은, 대명소노… 티웨이 인수 일정 ‘올스톱’

티웨이항공 임시 주총 D-10

이달에도 이사회 장악 무산 위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70일째 지연
“승인 늦어지면 주총 연기 불가피”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최종인수를 목전에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임시주주총회가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6·3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명소노 측 이사 후보들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상윤, 안우진, 서동빈 등 사내이사 3명과 이광수, 이병천 등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선임한다. 또한 김종득, 염용표, 김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모니터에 티웨이 항공사 로고가 나오고 있다. /뉴스시

하연 등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해 감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대명소노는 지난 3월 말 열린 티웨이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지연돼

이사회 구성 일정도 밀렸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초부터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차례 보완서류를 요구했고, 대명소노측은 추가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임시 주총이 열릴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약 70일 지난 상황에서 90일을 채울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부실한 자료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차례 보완서류 기간을 더할 경우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대명소노는 기업결합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에 걸림돌이었던 에어프레미아 지분 6285만6278주(22%, JC파트너스와 공동 보유)를 타이어뱅크에 매각하면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결단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공정위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명소노 측은 임시 주총 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일정을 주총을 연기할 예정이다. 대명소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

리고 있는 상황으로 한차례 서류 보완 요청 후 추가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임시 주총 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6월3일 대선을 꼽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기업결합을 승인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티웨이항공의 부채 비율(지난해 말 기준 542%)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자금투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어 90일을 다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기업결합 승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 후 결과를 발표 할 것”이라며 “신 정부 출범에 맞춰 승인해야 될 다른 건수도 많기 때문에 90일이라는 시간을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프리미엄·저당 격돌… 아이스크림 시장 ‘한여름 쟁탈전’

한화, ‘벤슨’ 프리미엄 시장 진출
남양, ‘백미당’ 리뉴얼·끼리 협업
빙그레, ‘딤앤로우’로 웰빙 공략
롯데, ‘0kcal 바’ 저당시장 선점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업계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베스킨라빈스가 독주하던 아이스크림 외식 시장에는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의 등장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 롯데와 빙그레는 저당·제로 제품 등 ‘건강 지향형’ 라인업을 앞세우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유통 대기업 한화갤러리아는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를 통해 신규 브랜드 ‘벤슨(BENSON)’을 오는 23일 서울 압구정 로데오에 첫 매장으로 선보인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파이브가이즈



롯데웰푸드 저당 아이스크림 5종 제품 패키지 모습. /롯데웰푸드

압구정점 등 인근 입점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전략적 출점이다.

벤슨은 국내산 유크림·아카시아꿀, 해외산 고급 초콜릿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원료를 앞세워 고급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천에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으며, 작년부터 TF를 구성해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본격적인 아이스크림 외식 시

장 공략이 예상된다.

기존 유업계도 자체 커피전문점을 기반으로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남양유업의 백미당은 브랜드 출범 10년 만에 리뉴얼을 단행하고, 프랑스 크림치즈 브랜드 ‘끼리’와 협업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고객 이목을 끌고 있다.

백미당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 브랜드로 청정 농가에서 생산한 무농약 유기농 우유를 사용해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담은 아이스크림과 라떼가 대표 메뉴다. 현재 전국 5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도심 속 휴식을 제안하는 ‘카페형 매장’, 백화점·쇼핑몰 중심의 ‘델리형 매장’, 그리고 본점과 삼청점 등 브랜드 감성을 오롯이 담은 ‘시그니처 매장’까지 다양한 형태로 매장을 리뉴얼해 선

보이고 있다.

매일유업의 풀바셋은 최근 식빵 브랜드 ‘밀도’와 손잡고 복합 매장 ‘폴앤밀도’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상하 아이스크림 바에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플레이버(맛)를 선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매장형 아이스크림 시장은 여전히 SPC그룹의 베스킨라빈스가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스킨라빈스는 전국 175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같은 해 롯데웰푸드의 나뚜루(26개), 해태제과의 빨라즈 밀 프레도(21개) 등 전통 브랜드들의 매장 수는 오히려 감소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빙과 빅2’로 꼽히는 빙그레와 롯데웰푸드 역시 점유율 방어를 위해 저당·제로 제품을 전략 상품으로 내세우며 대

응에 나섰다. 빙그레는 지난 3월 저당 아이스크림 브랜드 ‘딤앤로우’를 론칭하고 아이스밀크바·치어팩·소프트바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자회사 해태아이스는 제로 아이스바 제품군을 5종으로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월드콘 바닐라 저당’, ‘티코 밀크초코 저당’ 등으로 건강 콘셉트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스크류바 0kcal’, ‘쥬스바 0kcal’, ‘썬없는 수박바 0kcal’ 등 0칼로리 아이스바를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 니즈를 겨냥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5~7월)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며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8~9월 역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돼, 빙과업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이노텍, 휴머노이드 로봇‘눈’ 만든다

‘비전 센싱 시스템’ 공동 개발
‘아틀라스’ 차세대 모델에 적용

LG이노텍이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용 센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LG이노텍은 로보틱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로봇용 부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 산하 로봇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로봇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 센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LG이노텍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탑재할 ‘비전 센싱 모듈’을 담당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해당 모듈이 인식한 시각 데이터를 분석·처리하

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는다.

아틀라스는 인간처럼 두 팔·다리를 움직이며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말부터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 S)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주요 생산 시설에 시범 투입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비전 센싱 시스템은 RGB(빨강·녹색·파랑) 카메라와 3차원(3D) 센싱 모듈 등 다양한 센싱 부품을 하나의 모듈에 집약한 복합 센서다. 이를 통해 로봇은 어두운 환경이나 악천후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변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자율주행용 센싱 부품에서도 적용 사례를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CES 2024에서는 복합 센서 기술을 집약한 자율주행 솔루션 ‘센서팻’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LG이노텍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광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천기술을 로봇에 접목하는 방안을 보스턴다이내믹스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로버트 플래티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수준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은 “로보틱스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력을 계기로 LG이노텍은 로봇용 부품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챗GPT, 지브리 열풍에 1000만 시대 열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폭발적 인기
MAU 두 달 새 2배… 작년비 11배 ↑

챗GPT의 ‘지브리 열풍’이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기반 확대에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챗GPT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072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앱이 1000만 명 이상 이용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챗GPT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브리 열풍에서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오픈AI는 기존 이미지 생성형 AI인 DALL-E와 별개의 이미지 생성 AI 알고리즘을 추가했다. GPT-4o의 텍스트 추론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은 DA

LL-E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물론 기존 금지됐던 일러스트 스타일 모방까지 가능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사진을 업로드한 후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풍을 따라하는 기존 이용자에 더해 유행에 따라 신규 이용자도 급증하며 ‘지브리 열풍’은 식을 줄을 몰랐다. 당시 챗GPT의 지브리 스튜디오 작풍 학습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오픈AI가 지프리 풍 이미지 변환을 통해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인기는 계속됐다.

실제로 지브리 열풍이 분 3월 말 챗GPT의 MAU는 509만명이나, 지브리 열풍이 분 4월에는 2배 넘게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간을 늘려 지난해 4월(98만명)과 비교하면 이용자 수가 약 11배 급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www.dseshop.co.kr


동성제약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대구시, 자율주행 기술개발 돕는다… 4년간 146억 투입

산자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국비 99억 확보… 시비 47억 추가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집중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과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4년간 국비 총 99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사업'은 대구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인프라(158km 실증도로, 자율주행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단일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기술적 한계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지역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99억 원과 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비 47억 원을 포함해 4년간 총 146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경북지역 본부가 주관해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지원센터' 구축하고 자율주행 부품·서비스의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및 검증·분석을 위한 핵심장비 4종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센터구축과 장비구축에 대부

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의 산업기반 구축 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기업 지원 비중이 사업비의 50% 이상 차지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업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도로 기반 시험평가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킹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자율주행 부품과 서비스의 실도로 검증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운백대구시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사업은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skim@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경남도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5년 경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 환경, 복지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한은 내달 13일까지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봉화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봉화군이 오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7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정책 평가에 활용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건강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영양군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미당' 성료

경북 영양군 일원에서 열린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미당'이 지난 11일 폐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를 함께 이겨내고 지역민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존 '영양산나물축제'를 대신해 치유와 공감, 나눔 중심으로 기획됐다.

축제장은 찾은 방문객은 11만여명, 경제 유발 효과는 약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군청 잔디광장에 설치된 산불 피해 주제관과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는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안군, 해삼 20만 마리 방류

전남 신안군은 13일 흑산도 등 청정해역 8개 지선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5g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이다.

군은 오는 5월 말 흑산해역에 전복 19만 마리와 지도 선도갯벌에 참꼬막 6만 마리를 추가 방류하고, 6월 초순에는 해삼 씨뿌림사업 일환으로 해삼 서식기반 조성이 완료된 흑산 예리1구 등 7개 지선에 어린 해삼 4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신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17일 '부산가족축제' 개최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서 진행 '가족을 위한 놀이 체험의 장' 기획

부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제19회 부산가족축제'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며 부산의 모든 가족을 위한 놀이 체험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5월의 오늘, 온 가족은 빛나!'를 주제로 진행되며 부산의 가족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시 주최,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구·군 12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주관으로 열린다.

행사는 무대행사와 가족체험 마당, 가족전시 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무대에서는 사하구가족센터 '꿈꾸는 아오자이 무용단'의 베트남 전통 무용 공연과 동구가족센터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의 부산찬가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또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식도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같이평등, 함께돌봄, 모두포용 3개 마당에서 총 30개가



부산가족축제 포스터

/부산시

운영된다.

다솜관 다솜갤러리에서는 '우리 가족은 빛나'를 주제로 '우렁 소녀 발차기' 황선에 작가와의 북토크와 '우리 가족은 특별해' 가족 그림전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족이 행복해야 배움이 신나고, 일이 즐겁고, 부산이 행복하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청도군·상주시 등 41억 사업비 확보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響ALL來)'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는 청도군과 상주시가 최종 선정돼 각 14억원(청도군)과 27억원(상주시) 등 4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안부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위케이션(Workation), 러케이션(Learncation),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5개 분야에 대한 공모가 진행돼 곳당 최대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경북도는 두지역살

이 분야에서 청도군의 '054스페이스 on 스테이 청도' 사업과, 로컬벤처분야에서 상주시의 '상상주도 생활인구형 로컬(벤처) 창업지원 사업'이 선정돼 국비 17억원(청도 7억원, 상주 10억원)을 확보했다.

두지역살이 분야의 청도군 '054스페이스 on 스테이 청도'는 체류 플랫폼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비어있는(0) 5일장의 4일을 채운다'는 뜻으로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류·창업·주거 복합공간으로 3개층으로 구성된다

상주시의 '상상주도 로컬벤처 상주올래'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7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3억원, 민자 4억원)을 투자해 로컬벤처 창업가 발굴 및 육성, 로컬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및 공유오피스 공간과 단기 거주 공간 조성,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첨단화 추진

마산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선정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산단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며 총사업비 297억원 중 국비 252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부품 자율제조 공정 개선, 미래형 자동차 핵심융합부품 기



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시

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미래 첨단 자동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총 33개로 스마트 그린산단 5개, 메뉴판 사업 7개, 특화사업 21개로 구성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본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사전 컨설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진군, '울진금강송' FAO 현장실사 준비

울진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Ul-Jin Pinetree Agroforestry System)'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FAO 현장실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실사는 등재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단계로 평가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 현장 실사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GIAHS 과학자문그룹(SAG) 소속의 경제·환경 인류학자 캐서린 터커(Catherine Tucker) 위원이 실사를 맡는다.

터커 위원은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과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전곡

리 화전민 생가터, 소광리 농가 및 산채 재배 현장, 북면 두전리 주막촌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실사 과정에서 붓도랑과 한봉 같은 산지농업의 전통 기법과 금강소나무를 활용한 생활 도구, 송이산 가꾸기와 보부상 문화, 불영사 전통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울진군은 그동안 다수의 자문회의와 보완 작업을 거쳐 현장실사에 대비해 왔다. 실사 마지막 일정으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 계승과 공동체 협력의 실천 사례도 소개될 계획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매출 7.8% 늘었다… 이커머스, 가전 카테고리 강화 속도

마트 가전판매 전년비 20% 줄어
하이마트·전자랜드 매장수 감소세

쿠팡 ‘쿠가세’ 열고 고객확보 나서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열어 모객
G마켓-쿠쿠전자 협업 제품강화

이커머스가 신선식품에 이어 가전제품 소비 수요까지 흡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할인전 및 전자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전 카테고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결혼과 이사 등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1분기 가전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가전 소비 흐름 역시 오프라인 마트에서 온라인 채널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관련 소비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형마트에서 가장 큰 전년 대비 매출 감소세를 보인 제품군은 가전·문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 및 가정생활, 잡화 제품군이 전년 대비 각각 5.7%, 3.7%, 7.8%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가전 영역만 20.2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대형마트 내 가전제품 진열 모습.

/뉴시스

같은 기간 온라인 커머스 사정은 달랐다. 3월 한 달간 서비스·기타 품목을 제외하고 가전·전자 상품군 매출 증가율이 7.8%로 식품군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통상 3월은 결혼과 이사 수요가 몰리며 전자제품 업계의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힌다. 과거에는 주로 전자제품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온라인 시장 성장세에 따라 전자제품 소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전자제품 오프

라인 매장 수는 줄어들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3년 7개월 만에 1분기 기준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오프라인 점포 수는 감소 추세다. 현재 롯데하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수는 314개로, 최대 점포를 보유했던 2019년(466개) 대비 152개 줄었다. 전자랜드 역시 전국 매장 수가 85개에 그치며 100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커머스들은 가전 수요 확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경우 이달 간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최대 할인 행사 ‘쿠가세(쿠팡 가전디지털 세일)’를 열고 고객

확보에 나선다. 애플,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100개 이상의 국내의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11번가 역시 이달 ‘그랜드 십일절’ 세일 행사를 열고 모객 행위에 나섰다. 11번가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기간 대형가전 특가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드림 로봇청소기 ‘X40 Ultra’는 준비 물량인 1000대가 예약기간에 모두 완판됐으며, ‘LG 휘센 제습기 16L’, ‘에코백스 로봇청소기 T30S 프로’,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27인치’도 행사 기간 모두 팔렸다.

G마켓도 쿠팡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가전 제품군 강화에 나선다. G마켓은 쿠팡전자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공기청정기, 비데 등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단독으로 먼저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전제품군 역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하고자 소비 흐름이 생긴 것”이라며 “기존 오프라인 가전업체들의 경우 온라인 판매 채널 활성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농심켈로그

단백질 더하고 당은 뺐다
프로틴 그레놀라 제로슈거

농심켈로그가 단백질은 더하고 당은 과감히 뺐 신제품 ‘프로틴 그레놀라 제로슈거(사진)’를 출시하며, 제로 시리얼 시대를 개막했다.

켈로그는 최근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제로슈거 트렌드를 반영해 당류 저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끝에 주요 시리얼 브랜드 중 최초로 제로슈거 시리얼을 선보였다.

신제품 ‘프로틴 그레놀라 제로슈거’는 당 걱정 없이 건강한 시리얼을 즐길 수 있도록 원료 구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설계됐다. 통귀리, 현미, 흑미 등 당 함량이 낮은 통곡물을 엄선해 그레놀라를 구성하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와 알룰로스 같은 안전한 대체 감미료를 적절히 사용해 제로슈거 시리얼을 구현했다.

더불어 통곡물, 검은 약콩, 대두 단백질 등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단백질이 풍부한 채운 이 제품은 100g당 삶은 달걀 약 4개 분량에 해당하는 20.5g의 단백질을 담고 있어 아침 한 끼로 손색없는 영양 밸런스를 갖췄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영업이익 238% ‘썰렁’… 8년만에 ‘깜짝실적’

본업 경쟁력 강화·수익성 전략 성과
‘가격파격 선언’ 등 행사에 고객유입

이마트가 8년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중심 전략이 이번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2% 증가했다고 12일 잠정 공시했다. 순매출은 7조 2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마트 별도기준으로는 총매출 4조 6258억원, 영업이익 1333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각각 10.1%, 43.1%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의 경우 7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7월 합병한 슈퍼마켓 자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실적도 반영된 수치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할인점 부문은 1분기 매출 3조 422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같은 기간 매출 966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어난 423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이번 1분기 실적 상승 배경

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매입 체계를 통해 원가 절감을 이룬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나눠 운영되던 매입 방식을 통합 체계로 전환했다. 단일 매입 규모를 1.7배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가격파격 선언’과 ‘고래잇 페스타’ 등 특가 행사 등을 진행해 고객 유입 확대에 주력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이다.

이마트의 공간 혁신 전략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올해 1분기 스타필드 마켓 죽전 매출은 전년비 약 21% 증가했으며, 대규모 리뉴얼을 단행한 문현점, 용산점, 목동점 역시 각각 35%, 11%, 6%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주요 자회사들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멤버십 고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프리미엄 매장 런칭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고, 신세계푸드도 원가절감과 비용 효율화로 실적이 개선됐다.

/안재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375ml 페트’ 출시

6입 패키지·박스 단위 한정판매 예정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소주 ‘처음처럼’이 페트(PET) 소주 소비 증가 트렌드에 맞춰 375ml 페트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페트 소주 소비 증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본격화된 흡음 트렌드의 확산 및 페트 제품의 휴대, 재활용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정 채널 소주 소비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를 반영하듯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동안 페트 소주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작년에는 매출액 기준 페트 소주의 비중이 병 소주를 넘어섰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액 기준으로 약 55%를



/신원선 기자 tree6834@

차지하는 등 가정 채널의 페트 소주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페트 소주의 성장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선보이는 ‘처음처럼 375ml 페트’는 360ml 병 제품보다 용량은 15ml 증가했음에도 병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와 페트 제품 특유의 휴대 편의성이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6입 패키지 혹은 박스 단위로 한정 판매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가정용 PET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극강의 가성비를 경험할 수 있는 ‘처음처럼 375ml 페트’ 제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CU,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팝업 오픈

홍대상상점·올림픽광장점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이달 말까지 홍대상상점과 올림픽광장에서 아이돌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사진과 최근 발매된 디지털 싱글 앨범 ‘러브 랭귀지’ 메인 이미지로 꾸며졌다. 이외에도 포토존과 아티스트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코너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CU는 이달 23일부터 팝업스토어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한 ‘러브 랭귀지’ 앨범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연계한 온·



CU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팝업스토어 내부 모습.

/BGF리테일

오프라인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BGF리테일 강병학브랜드마케팅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팝 아티스트와 K-콘텐츠의 대표 주자인 CU 편의점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팔도 ‘몰랑 과수원젤리’ 출시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신제품 ‘몰랑 과수원 젤리(이하 몰랑 젤리·사진)’를 출시했다.

몰랑 젤리는 쫄깃한 식감의 간편 디저트로 한라봉, 청귤 젤리 2종을 한 팩에 담아 골라먹는 재미를 더했다. 제주도 산 한라봉 농축액과 청귤 착즙액의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패키지에는 인기 캐릭터 ‘몰랑이’를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여러 오브제와 함께 적용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제품 출시로 팔도의 젤리 라인업은 총 5종으로 늘어난다. 2020년 ‘뽀로로 과일맛 젤리’를 시작으로 ‘잔망루피 젤리’, ‘뽀요소다 젤리’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카테고리를 확장 중이다.

/신원선 기자

콜마홀딩스, 지주사 경영권 압박… 오너 남매 ‘갈등조짐’

콜마비엔에이치 부진·주가하락에
이사회 재편 통한 ‘경영정상화’ 방침

비엔에이치 “현재 회복케도 진입
기존경영진의 연속성 중요” 반박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가 주요 계열사인 콜마비엔에이치에게 신규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콜마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임시 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 재편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지주회사 주요 경영진으로서, 자회사 콜마비엔에이치의 실적 부진, 주가 하락, 윤



콜마비엔에이치 전경.

/콜마비엔에이치

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의 경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콜마비엔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지주사로서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지원하지 못한 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실적 턱여라운드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 및 이사회 변경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회복 케도에 진입했고,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의 전략적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 대표이사 체제였던 2020년은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사업 성과가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였다. 이후 업황 조정 및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에 따른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마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위탁개발생산(ODM) 전문 기업인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부터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61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916억원, 2023년 302억원, 2024년 246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윤여원 대표 체제에서 콜마비엔에이치는 공급망관리(SCM) 운영체계 구축, 품질인증 등 생산 경쟁력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다졌다.

최근에는 경영 계획을 한층 확대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이사회에 진입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정철 신입 부사장을 영입했다. 유신임 부사장은 제약 업계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28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이밖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도 확충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마련됐다. 오

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본수익률을 각각 5%에서 10%로 높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배당성향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주주환원 정책도 실천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이번 임시 주총과 사내이사 신규 선임이 오너 일가 남매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짚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윤동한 회장의 장남·장녀로, 윤상현 부회장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다.

이와 함께 콜마비엔에이치 지분은 콜마홀딩스가 44.63%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윤여원 대표는 7.78%의 지분을 가졌다.

윤여원 대표는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논의는 실제적 타당성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비비고’ 日 MZ세대 사로잡다

K-팝 페스티벌 ‘KCON 재팬’ 참가
푸드트럭 ‘비비고 스쿨’ 부스 운영
만두·떡볶이·김밥·미초 등 제공

CJ제일제당이 ‘KCON 재팬 2025’에서 비비고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K-푸드를 알렸다.

CJ제일제당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 ‘KCON 재팬 2025’에서 비비고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CJ제일제당은 현지 MZ세대 소비자를 겨냥해 ‘비비고 스쿨’ 부스를 운영했다. 학교 앞 푸드트럭을 콘셉트로 하는 시식 코너에서는 일본 시장의 주력 제품인 비비고 만두·떡볶이·김밥·미초 등을 제공했다. 사흘간 부스를 찾은 약 1만2000여명의 방문객들이 갓 만들

어진 비비고 만두와 떡볶이를 먹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틱톡 챌린지, 인스타그램 인증 등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붙일 수 있는 비비고 학생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일본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일본 사업 대형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기존 K-팝과 K-콘텐츠 중심의 ‘한류’를 넘어 최근에는 K-푸드 등을 앞세운 한국의 생활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최근 CJ제일제당은 일본 치바현에 축구장 6개 크기 넓이의 부지(4만2000㎡)에 약 8200㎡ 규모로 신규 만두 공장을 구축하고 일본 냉동만두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밝

혔다. CJ제일제당은 이 공장에서 오는 9월부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공급하고 소비자의 조리편의성을 강화한 신제품 등을 출시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이끌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냉동김밥, K-소스 등이 이온(AEON), 코스트코, 아마존, 라쿠텐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전 세계 국가 중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비비고 김밥’은 이온과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지난해 약 250만 개가 판매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와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K-푸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제품들과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종근당, 애플론과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

혈액암 치료제 국내판매 우선권 가져

종근당은 지난 9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항체 신약개발 기업 애플론과 전략적 지분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은 신주발행을 통해 애플론의 기명식 보통주 140만주(7.3%)를 취득하고, 애플론이 개발하고 있는 혈액암 CAR-T(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AT101(네스페셀)’의 국내 판매 우선권을 갖게 된다. 향후 새로운 CAR-T 치료제 및 이중항체 기반 신약의 공동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AT101은 애플론이 2025년 신속허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로, 개발이 완료되면 종근당은 국내 상업화를 통해 CAR-T 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양사는



종근당 김영주 대표(왼쪽)와 애플론 이종서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전략적 지분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

혈액암, 고형암, CAR-T 치료제 및 이중항체 치료제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우선순위 선정부터 임상, 허가, 상업화 전략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 추가 소각

올해 소각규모 9000억 넘어서

셀트리온이 추가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며, 올해 소각 규모가 9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해 자사주 소각 규모를(7000억원)을 5개월 만에 뛰어넘은 수치다.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약 58만 9276주로, 오는 21일 소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수차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반복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진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이미 소각 완료했거나 결정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지난해 약 7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약 9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에 따르면 올해 연간 조단위 자사주 소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도 활발해 지난달 28일 1000억원 규모의 결정분을 포함하면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4500억원으로 전년도 약 436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약 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장내 매수키로 하면서 책임경영에 나섰고,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000억원, 그룹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가 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최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진행,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약 400억원 규모로 청약을 마감했다. 신청인원은 약 850명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피지오겔’ ‘178 헤리티지’ 한정판

LG생활건강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피지오겔에서 ‘178 헤리티지’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보습력과 각종 효능을 갖춘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피지오겔 대표 제품 ‘DMT 크림’과 차세대 장벽 크림 ‘리제너러티브 크림’을 함께 담은 ‘보습 듀오 세트’, 트러블 피부부를 위한 ‘시카 밸런스 세트’, 고호능 향산화·미백 관리에 적합한 ‘사이언수티컬즈 앰플 듀오 세트’, 민감 진정과 장벽 개선에 특화된 ‘레드수딩 AI 세트’까지 총 4종류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제품들을 통해 피지오겔의 전문성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 2종 지속 판매

롯데리아, 정식 메뉴로 도입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신 메뉴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 2종의 인기에 힘입어 금일부터 정식 메뉴로 판매한다.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는 스타 셰프 권성준 셰프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메뉴로 토마토 소스를 강조한 ‘토마토 바질’과 레드와인 발사믹의 산뜻함을 즐길 수 있는 ‘발사믹 바질’ 총 2종으로 출시됐다.

출시 후 일주일간 45만개·한 달간 150만개·석 달간 400만개라는 판매고를 세우며 고객들의 정식 출시에 대한 요청과 호응이 높아지면서 상

시 판매를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 2종은 최근 2년간 롯데리아가 선보인 신제품 중 판매량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등극했으며 재구매 객수 역시 타 제품 대비 2배 이상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고객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목표 판매량의 약 180%를 달성했다.

성별 구매율 분석 결과, 2종 모두 남성 구매율 53%, 여성 구매율 47%를 차지하며 남녀 모두의 입맛을 고르게 사로잡았다. 세대별 구매 분석 결과로는 20대 30%, 30대 43%, 40대 19%로 2040세대 비율이 92%를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여자의 건강은
두 번 만들어진다
장에서 한 번, 질에서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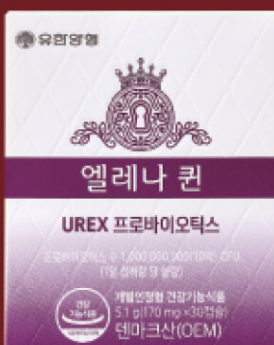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 엘레나 Day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엘레나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아
여성의 질과 장을 더블 케어합니다
5월엔 엘레나와 함께 마음을 더블로 전하세요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원료 UREX® PROBIOTICS]



[성장기 여성 청소크]



[임산부 및 수유중인 여성]



[갱년기 여성]



프리미엄 질유산균 MY FIRST
ELENA



삼성전자, 전 세계 랜드마크서 ‘비전 AI’ 광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삼성 비전 인공지능(AI)’ 옥외광고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2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중국 상해 훙이 인터내셔널 플라자 등에서 삼성 비전 AI 옥외광고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KBI그룹, 경북 대형산불 피해복구 성금 1억 기탁

KBI그룹은 지난주 8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사진 가운데)은 KBI국민산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KBI그룹 계열사의 정성을 모은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KBI그룹



현대차 정몽구재단, 차세대 국제협력 인재 육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차세대 국제협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OGA) 9기 25명을 선발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과 연구원은 앞으로 10개월간 청년들의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INGO) 진출을 돕는 OGA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우리는행, 가족봉사단과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우리는행은 ‘WOORI 가족봉사단’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플로깅(해안 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WOORI 가족봉사단’은 우리는행 직원과 가족들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난 3월 발대식과 4월 굿윌스토어 봉사활동에 이어 세 번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는행



배달의민족, 외식업주 자녀 310명에 장학금 전달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외식업주 자녀 310명에게 총 16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글로벌 시장 주도하는 롯데”… 혁신정신 성과 격려

2025 롯데 어워즈 개최

롯데유통 글로벌전략부문 ‘대상’
현지화 전략으로 인도서 지속성장

롯데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5 롯데 어워즈(이하 롯데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전과 혁신 정신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한 임직원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두려움과 불가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아가는 롯데’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 개최됐다.

2025 롯데 어워즈 대상은 인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 롯데유통 글로벌전략부문이 수상했다. 종교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초코과일을 선보였고, 높은 기온에서 품질



신동빈 롯데 회장(가운데)과 이창엽 롯데유통 대표(왼쪽 네 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롯데

을 유지할 수 있는 내열성 초콜릿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높게 평가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우수상은 영업·마케팅, 연구개발(R&D), 생산·구매, 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AI·DX) 분야에서 5개 팀이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매출을 올린 롯데중앙연구소 디저트2팀이 R&D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합성수지 컬러 매칭 시스템을 개발한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칼라랩과, 대기업 최초로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선보인 롯데이노베이트가 AI·DX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롯데정밀화학은 의약품 셀룰로스 유통사와의 글로벌 유통 협력 체결 공로를 인정받아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수상했다. 롯데

칠성음료는 음료와 주류의 하이브리드 생산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생산·구매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혁신으로 만들어낸 많은 성과가 모여 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오직 롯데만이 가능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마트, ‘몽드 셀렉션’서 수상

〈국제식품 품질평가 인증기관〉

자체 브랜드 ‘오늘좋은·요리하다’
출품 상품 10개 모두 수상작 선정

롯데마트는 국제 품평회 ‘2025 몽드 셀렉션’에서 자체 브랜드(PB)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제품으로 금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몽드 셀렉션은 지난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국제 식품 품질 평가 인증 기관이다. 전문 셰프, 소믈리에, 영양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80여 명의 전문 평가단이 맛과 향, 식감, 패키지 등 2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상품을 평가한다. 올해는 150여 개국에서 총 3000여 개가 넘는 상품이 참여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몽드 셀렉션에 출품한 자사 PB 상품 10개가 모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요리하단의 ‘곤드레나물 솔밥’과 ‘옛날 꿀호떡’, 오늘좋은 ‘김맛나’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요리하단의 ‘바삭하구마 야채튀김’과 ‘단팥붕어빵’, ‘순짜장면’과 함께 오늘좋은 ‘달콤고소 짬스낵’, ‘국내산 19곡 크리스피롤 미니 초코’ 등 총 7개 품목이 은상을 수상했다.

출품한 상품들은 맛과 향, 패키지



롯데마트 PB 상품 오늘좋은 ‘김맛나’ 수상 이미지.

/롯데마트

평가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오늘좋은 김맛나’는 김, 과자, 달콤한 양념을 조합한 한 입 크기 제품으로 간편하게 한국과 자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요리하다 곤드레나물 솔밥’은 향긋한 곤드레나물 향과 구수한 솔밥의 맛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슈퍼 문경석 식품 자체 브랜드(PB) 개발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드 셀렉션 식품 분야에서 출품 전 품목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신상품을 꾸준히 선보여, 국내외 PB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KB국민은행, ‘KB라스쿨’ 졸업·입학식

교육격차 해소·우수인재 양성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KB라스쿨(La School) 고등부의 2024년도 졸업식과 2025년도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KB라스쿨(La School)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드림 웨이브 2030’의 학습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8년간 전국 2만 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4년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2025년도 사업 소개, 선서식, 축하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현아 사단법인 도구 대표(왼쪽 첫번째), 김경남 KB국민은행 ESG 상생본부장(오른쪽 첫 번째)과 KB라스쿨 고등부 멘토·멘티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라스쿨(고등)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교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양그룹, 내달 12일까지 ‘삼양씨즈’ 모집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씨즈’ 9기

삼양그룹은 내달 12일까지 1개월간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씨즈’ 9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삼양씨즈는 삼양그룹의 대표적인 대학생 참여프로그램으로 씨앗의 의미하는 영어 단어 씨드(Seed)에서 이름을 따와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 잠재력을 지닌 대학생들이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집 대상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삼양그룹의 주요 사업을 이해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삼양그룹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삼양그룹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인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부원장 최상희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수 △해양연구본부장 유성순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장 이언경

부음

▲유삼상씨 별세, 이성각(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씨 장인상 = 12일, 전북 부안군 부안호남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63-581-1004



ANGELINUS

기후변화와 식탁의 위기



연 윤 열 의
푸드특목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간 한반도의 기온상승, 강수량 증가, 여름 길이의 변화 등 뚜렷한 기후변화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먼 미래에는 온난일이 급증하고 한랭일이 거의 사라지는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6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2℃로,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 최근 30년 동안 기온은 1.4℃ 상승하였으며, 특히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30년 동안 20세기 초보다 강수량이 124mm 증가하였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서리 일수와 한랭일이 증가한 반면 강수량이 감소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과거 30년 이내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 미래인 2081~2100년에는 고탄소와 저탄소 시나리오간의 기온상승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기온은 7.0~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온난일(상위 10% 최고기온 발생 일)이 약 4배 증가하고, 한랭일(하위 10% 최저기온 발생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온난일은 약 2배 증가하나, 한랭일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주식(主食)인 한반도의 쌀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우를 동반한 기온의 상승, 강수량의 변화, 장기간의 폭염일수와 같은 극한의 기후 현상은 쌀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의 추세대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쌀 생산성이 2040년대 13.6%, 2060년대 22.2%, 2090년대에는 40.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서 쌀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전국에 산재한

미국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쌀 통계를 통합관리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의 식감에 매우 민감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쌀의 품질이 저하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감에 맞는 쌀을 재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온도가 1℃ 오를 때마다 밥쌀용 쌀의 외관 품질은 2~3%, 밥맛은 6% 나빠진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비축량을 확대하며, 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쌀 재배 품종의 변화와 소비자 한국인의 식감에 적합한 수도작 품종의 위기,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알래스카 LNG, 투자 앞에 선 물음표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해당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총투자 규모는 약 480억달러(약 68조 원)에 달한다.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도 한때 이 사업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전 충분한 사업성 검

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가 수출 물량 확대와 함께 선박 발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조선업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기도 어렵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운송 구조 측면에서도 알래스카 LNG는 기존 미국 남부 지역에서 수출되는 LNG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LNG 시장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으며 한국·일본·중국·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요처까지 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선박 운항 시간이 길어지고 동일한 물량을 운송하는데 더 많은 LNG선이 필요해 선박 수요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아시아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LNG 운송선박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높은 투자비와 낮은 수익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단순한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간 기업들의 입장도 복잡하다. 자체적으로 LNG를 직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요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입선 확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LNG는 5~10년 단위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기에 수요 변화 없이 공급처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관세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띄고 있지만 실제 참여 방식과 규모 결정에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가 향후 실현 가능한 에너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3일 (음 4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분노가 치밀어도 차분하게 분을 참아야. 48년생 손뽕도 미주쳐야 소리가 난다. 60년생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라. 72년생 미래의 자산은 현재 삶의 부지런한 결과이다. 84년생 폭풍이오니 멀리 있는 길은 금물일 듯.



37년생 조상제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49년생 젊음은 언제나 행복한 시기. 61년생 공부에 매진하여 갈고닦아라. 73년생 초대는 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데. 85년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연륜은 무시하지 못함.



38년생 여행을 떠나려면 상비약도 챙겨야. 50년생 능력이 부족하네 이직이 뭐가 그리 급한가. 62년생 지출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74년생 누구를 초대하려면 지출도 따르게 되니. 86년생 몸은 청춘이냐 계속 게으르지만 하니 하랄.



39년생 매사에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5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미리 거절. 63년생 이직보다는 다니는 직장을 소중히. 75년생 부정적인 마음은 언제나 발전이 저해된다. 8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40년생 상대는 교만해도 나는 진솔하게 대할 것. 52년생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자제해야. 64년생 어디를 가나 스승은 있으니 겸손하라. 76년생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신 말만 길어지면 눈총. 88년생 외출할 때 연락망인 핸드폰 챙겨라.



41년생 친구는 서로 보물과 같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53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잊히는 것이라. 65년생 힘든 업무를 선택해 도와준다. 77년생 드림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찾도록. 89년생 급작살이 있으니 지하실 다닐 때 미끄럼 주의.



42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옷을 잘 챙겨보자. 54년생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지우지. 66년생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78년생 마음이 상해도 가족끼리는 양보하며 협조해야. 90년생 쾌청한 날이니 집 안 청소를 시작.



43년생 묵었던 일이 순조롭게 해결. 55년생 시간이 없어 곤란하더라도 일은 마무리 하라. 67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 79년생 혼사 문제로 사돈끼리 다투기보다는 도덕적으로. 91년생 모임에 화려한 옷을 입고고 마음을 화사하게.



44년생 남의 부부 일에 간섭하다 도리어 화근. 56년생 힘든 끝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68년생 후배 동료들을 선행하지 마라. 80년생 남자 친구에게 눈에 띄려 하지 말고 말조심. 92년생 급작스러워 돌아가라 했으니 음식 섭취에도 천천히.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지만 사람은 옛사람이. 57년생 지식을 유용하게 쓰니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오전부터 활기차게 계획을. 81년생 조상님 덕으로 오늘이 있는 것이니 효행을 생각해보라. 93년생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부류를 경계.



4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 58년생 모자란 듯이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70년생 반란견을 때리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82년생 안되면 어쩌지 하는 근심은 접고 공부하라. 94년생 돈 자랑을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베풀어라.



47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서두르지 말라. 59년생 우기다가 손실이 커진다. 71년생 부적 절한 만남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83년생 늦지 않았으니 천 리 길도 다시 한 걸음부터. 95년생 복이 없으면 기회를 만나도 덕을 못 보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새우 등 터지는 중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늘 진행 중이다. 국가 간의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 감정 대립, 이해 집단끼리의 갈등은 물론 한집안 내에서도 부부간의 불화로 자녀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무튼 요소요소 이런저런 싸움은 끊임 없이 없다. 뭐니 뭐니해도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서로 때리고 부과하는 관세로 인해 그사이에 긴 나라 중 가장 민감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은 우리 한국인 듯하다.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사자성어 중에 ‘경전하사(鯨戰蝦死)’가 있다. 우리 말로 풀면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가 된다. 사자성어보다는 우리말 속담이 더욱 실감 나는 경우다.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중간에 낀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됨을 이렇게 실감 나게 표현한 때도 드물다.

새우 등 터지는 경우가 어디 관세뿐이겠는가? 이렇다저렇다 하는 대학 입시요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애가 탄다. 벌써 일 년이 넘어가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다. 대학병원 예약이나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제때 진료 진단을 받지 못하여 병을 키우고 악화시키는 일은 물론이요, 급한 응급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 헤매다가 목숨까지 잃는다.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무엇보다 정쟁으로 서로 으름대느라 민생은 뒷전인 정당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성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적으로 대립하게 만들고, 파퓰리즘을 의식한 정책으로 중장년 노령인구를 집으로 여가게 만들며, 지지 정당이 다른 국민끼리 척을 지게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표판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7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라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9	1	7	6	4	8
7	8	4	9	2	6	8	9
9	6	1	8	8	4	9	2
9	6	2	4	8	1	9	6
4	8	9	6	7	2	1	8
6	1	8	8	9	9	4	7
8	9	6	7	9	8	2	1
1	8	2	6	8	7	5	9
2	9	7	1	4	9	8	6

9	7	1	8	9	4	2	6	8
2	8	4	8	9	6	7	1	9
6	8	9	1	2	7	4	8	9
7	9	8	6	8	2	9	4	1
9	1	2	4	7	9	6	8	8
8	4	6	9	8	1	9	7	2
1	2	9	7	1	8	8	9	6
4	8	8	9	1	9	8	2	7
8	9	7	2	6	8	1	9	4

산업부, 팹리스 경쟁력 높인다 맞춤형 인프라사업 신규 착수

수도권·비수도권 핵심 거점 조성
성남 451억, 대구 217억 투입
고가장비 활용 등 기업활동 지원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고가의 반도체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 지원센터가 경기 성남 2관교에 구축되고,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지원을 위해 대구에 반도체 설계 검사·검증 전담 거점 센터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5월까지 공모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내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첨단장비를 경기도 성남 제2관교 글로벌 융합센터 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도입한다.

도입되는 첨단 장비는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가 포함되고, 시제품 칩 제작 후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 평가와 표준 적합성 검증이 가능한 고성능 계측 장비, 분석 시스템 등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51억원(국비 322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사업을 주관하고,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올해 예산 95억 1000만원이 반영된 만큼, 오는 7월까지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청 별관에는 팹리스 검사·검

증 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센터에는 자동차·로봇·의료기기 등 고신뢰 반도체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설계 단계 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확인(V&V) 전문 장비 4종과 전용 검증 공간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사업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한국팹리스 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17억5000만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던 검증 지원 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시켜, 비수도권에 소재한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 및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농림위성 개발 현장 점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2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농림위성(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등을 청취·수렴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림위성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력, 에너지캐시백 캠페인 전개

7월 13일까지… 로봇청소기 등 경품

한국전력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기사용을 줄인만큼 보상을 받고,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주택용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호(5월 현재)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확대를 위해 5월 14일~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경품을 제공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

kWh(킬로와트시)당 30원~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문화를 확산 시키며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경품 혜택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식품 물가동향·대응계획 발표

1600억 규모 농축산물 할인예산 상시 투입

할인지원 통해 체감물가 완화 방침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공공배달앱 할인쿠폰을 지급해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1% 상승했다. 하지만 축산물(4.8%), 가공식품(4.1%), 외식(3.2%)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할인예산을 상시로 투입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할인 예산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정예안으로 확보한 1200억 원에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해 총 1600억 원 규모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성수기에는 품목 제한을 풀어 할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축산물의 경

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채소류는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여건을 조성한다. 사과·배는 품목별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외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월 말부터는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배달앱 할인 쿠폰 예산 650억 원을 담았다.

가공식품은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부, 녹조 발생지역 집중 점검

하천 인근 야적퇴비 관리 강화

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하천 인근에 가축분뇨 퇴비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특별 점검한다.

‘야적퇴비’는 비가 내릴 때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녹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유역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과 하천에 인접한 축사·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중심으로 관리 대상을 늘린다. 3월 말 기준 총 1363개로 파악된 야적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는 소유주가 모두 수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3일 (화)
음력 : 4월 16일

수도권 날씨
15~2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5 | 해질 / 19:33

백령도 12/17
파주 11/23
인천 14/22
수원 14/25
평택 12/26
연천 12/25
동두천 12/25
가평 9/26
서울 15/25
양평 11/27
용인 14/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中 허리핑 부총리, 美와 무역회담 직후 WTO 사무총장과 회동
▲ 트럼프 “美 약값 30~80% 내려갈 것”…행정명령 서명 예고



▲ 교황 레오 14세, 첫 부활 삼종기도…기도 제목은 ‘종전과 평화’
▲ 美육군, 인공지능 기반 이동지휘소 도입…방산업 지각변동 예고

/사진 뉴시스

▲ 블룸버그, 아시아 통화 추가 절상 전망…“원·대만달러·인도 루피 등 저평가”
▲ 젤렌스키, 푸틴에 ‘튀르키예 정상회담’ 역제안…성립 가능성은 ‘글쎄’



이커머스
가전 카테고리
강화 속도
L1

metro®

Life

콜마홀딩스
오너남매
갈등 조정
L2



스타트업 키우고, 협력사 챙기고... 상생으로 내일 꽃피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사회공헌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업'을 목표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참여와 상호교감을 바탕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회사는 이해관계자, 협력사, 지역사회 모두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성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을 쏟는 모습이 돋보인다.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 발굴,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에그’로 친환경 스타트업 발굴·육성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에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대기업 협업형 창업도약 패키지의 일환이다. 지난 2021년 1기 모집을 시작으로 탄소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해 왔다. 친환경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친환경 사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의 ‘에그’로 선발된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 및 기술 자문 등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육성 패키지와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연구개발(R&D) 인프라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에그 1기 멤버로 뽑혔던 자원순환 및 원료 재생 기업 ‘엘디카본’은 SK인천석유화학과 열분해유 활용 및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타이어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에그 4기 멤버 ‘비엔지파트너스’는 SK이노베이션과 협업해 AI(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평가하고 녹색 금융 지원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에그로 선발된 스타트업 중에 환경 분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맞춤형 멘토링과 사업 협업 프로그램으로 환경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급 1%’로 협력사와 상생 8년째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도 힘을 합쳐 협력사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1%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60억원을 협력사 구성원 4만 8000여명의 복지 향상과 지원에 활용했다.

해당 기금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출연해 조성한다. 지난 1월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 40억 6000만원을 협력사에 전달했으며 이 중 33억 7000만원은 협력사 구성원 5400여명에게 지급됐다. 특히 기금은 정부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기금을 지급해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더했다.

아울러 정부와 협력사가 뜻을 모아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6억 9000만원이 지급돼 기금에 참여한 21개 협력사 소속 약 1100여명의 상해보험 가입 등 복지 프로그램에 활용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조성한 1%상생기금을 8년째 공백없이 운영해 오고 있어 기쁘



SK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에그’ 4기에 선발된 15개 스타트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심오피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김중화 SK에너지 사장, (왼쪽 여섯 번째)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이 지난 1월 울산광역시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CLX에서 열린 ‘2025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에그’ 운영 투자유치·기술자문 등 프로그램 제공

기부금 조성해 협력사 복지 향상 나서 명절 맞아 급여 1% 모아 40.6억 전달 협력사 구성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경북지역 산불 이재민에 생필품 전달 결식우려 아동에 간식·영양제 등 나눔

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과 구성원 복지 향상 등에 계속해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역 곳곳에 스며든 따뜻한 손길

기업 간 상생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사 구성원들은 간편식, 세면도구, 마스크 등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은 키트와 손편지를 썼다. 이는 산불 발생 지역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의 이재민들에게 전달됐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울산CLX)는 울산 울주군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2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

다. 울산CLX 구성원들은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응원의 마음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울산 CLX가 소재한 경상도 지역의 산불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울산 울주군 일대에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총 10억원을 지원해 60ha(헥타르) 산지에 산벚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SK 울산 행복의 숲’ 조성 사업을 벌였다. 식수 활동은 지난 2022년 가을과 2023년 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사 구성원 250여명이 참여해 6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밖에도 전국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지원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간식과 영양제 등 생필품이 담긴 ‘행복상자’를 제작해 나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SK그룹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아동들에게 지급됐다. 포장 과정에서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방식을 추진해 환경에 대한 배려도 함께 담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행,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한화, 12연승 캐거...13일 홈 경기서 13연승 도전 /사진 뉴시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4경기 만에 무안타 탈출 ...1안타 1타점 신고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FC 육동한 춘천시장 출입 제한’에 사과

▲사우디 알 나스르, 오는 6월 ‘계약 종료’ 호날두와 재계약 보류

▲손흥민, 토트넘 최고참 될까...‘최고참’ 벤 데이비스, 재계약 소식 무

▲남자배구 대한항공 ‘레전드’ 신영수, 대한항공에서 코치 경력 시작